三國時代 心葉形 귀걸이 樣式에 대한 硏究

김 문 자
水原大學校 生活科學大 衣類織物學科

A Study on the Heart shaped Earring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Moon-Ja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 Su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of the Heart shaped Earring in old tombs of Three Kingdom States.

First, Heart shaped Earring is 7 part in according to heart styles. I-A type was original style and that was influenced by scythe style. I-A, II-1-A type was general style that was found in most of the old tombs in Kokuryo, Pacjae, ancient Silla, Gaya.

I-B, II-2-A type was also found in most of the old tombs except Kokuryo. Then II-2-A type was transmitted to Japanese Heart shaped Earring. I-A, I-B, II-1-A, II-2-A type was general style in ancient Silla, Gaya. II-1-B, II-2-B, II-3-A type was excavated from the only Pacjae tombs and II-3-B type was excavated from Kokuryo tombs. II-3-A, II-3-B type was unique style that was found in old tombs in Kokuryo, Pacjae.

Key Word : 귀걸이(Earring)

Ⅰ. 序 論

귀걸이는 三國時代 裝身具중 특히 그 종류가 많은 대표적인 形態로 지금까지의 硏究는 주로 타 장신구와 함께 서술되는 것이나, 또는 귀걸이 전체를 분류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 冠帽나 다른 生活道具들과의 비교 연구로 古墳 編年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1)]

1) 신상호, "耳飾考", 梨花女大 碩士學位請求論文, 1986.
박영화, "귀걸이 垂飾에 관한 考察", 梨花女大 美大 碩士學位請求論文, 1984.

보통 귀걸이의 양식은 먼저 간단한 고리형태로만 되어 있는 單環式과 각종 수식이 달려 있는 垂飾付 귀걸이로 대별될 수 있다. 그리고 垂飾付귀걸이는 다시 耳根에 걸리는 형태에 따라 細環式과 太環式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환식과 태환식에 걸리는 條의 수에 따라 單條式, 多條式으로도 나눌 수 있다. 또한 中間飾의 형태에 따라 좀더 세분 할 수 있고, 또한 맨 끝에 달리는 垂飾部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귀걸이의 명칭은 주로 이 垂飾部의 모양에 따라 불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중 加耶를 포함한 三國 모두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귀걸이의 양식은 보통 心葉形 귀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다른 裝身具나 타종류의 귀걸이류에 비해 고분출토 유물량은 많은 편이지단 아직까지 양식 분류 작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心葉形 귀걸이의 樣式을 다시 세분하여 그 각각의 形態 및 特徵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高句麗, 百濟, 古新羅, 加耶 귀걸이 樣式을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硏究資料는 高句麗地域 出土 귀걸이 4점, 百濟地域은 8점, 古新羅地域은 25점, 加耶地域은 9점 등 총 46점의 귀걸이를 7종류로 분류〈표1 참조〉하였는데, 주로 古墳 發掘報告書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高句麗地域 出土 귀걸이는 實物을 볼 기회가 없어 圖板만을 사용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Ⅱ. 心葉形 귀걸이의 樣式 分類

加耶를 포함한 三國時代 고분 출토품들을 중심으로 垂飾部인 심엽형의 형태와 母環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고자 한다.

먼저 心葉形 수식의 형태에 따라 크게 心葉이 한 개인 單葉形(Ⅰ식)과 여러개의 複葉形(ⅡI식)으로 나누는데 중앙에 한 개와 앞 뒤 양쪽에 중앙 것보다 작은 심엽형의 瓔珞形 한 개씩이 달려 있는 複葉形(Ⅱ-1식)과 前者와 수식부인 심엽형은 같으나 앞뒤에 부착된 瓔珞形이 圓形인 경우(Ⅱ-2식), 같은 크기의 앞 뒤 2매의 心葉形이 달려 있는 複葉形(Ⅱ-3식)으로 나눈다. 이들은 다시 母環의 형태에 따라 細環式(A식)과 太環式(B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양식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고분출토품들을 따라 세분하면 단엽형은 Ⅰ-A식과 Ⅰ-B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엽형은 Ⅱ-1-A, Ⅱ-1-B, Ⅱ-2-A, Ⅱ-2-B, Ⅱ-3-A, Ⅱ-3-B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고분출토품에서 Ⅱ-1-B식은 그 발견예가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單葉形 2가지, 複葉形은 5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양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1> 나라별 心葉形 귀걸이 양식 분포

양식 / 나라	Ⅰ-A식	Ⅰ-B식	Ⅱ-1-A식	Ⅱ-2-A식	Ⅱ-2-B식	Ⅱ-3-A식	Ⅱ-3-B식	계
高句麗	1		2				1	4
百　濟	1	1	2	2	1	1		8
古新羅	3	9	8	6				26
加　耶	2	1	3	2				8
계	7	11	15	10	1	1	1	46

* 숫자는 귀걸이 갯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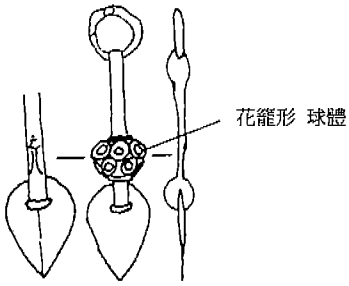
伊藤秋男, "耳飾の型式學的硏究に基づく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試案", 『朝鮮學報』, 제64, 天理大學 朝鮮學會, 1972.

尹世英,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관하여" -古墳出土 冠帽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第17號, 1974.12.

1. 單葉形 귀걸이(I-A식, I-B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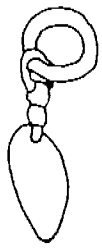
1) I-A식

高句麗지역에서는 강서군 보림리 대동 제19호 무덤에서 출토된 것(그림 1)이 있는데 세환에 긴 고리를 연결하고 그 아래에 花籠형 垂飾部를 달고 다시 심엽형이라기 보다는 杏葉形에 가까운 垂飾을 매달고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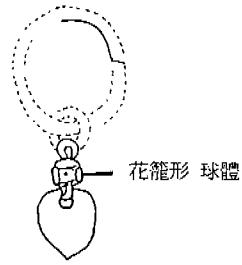
(그림 1) I-A식 心葉形 귀걸이
高句麗지역 강서군 보림리 대동 제19호 무덤 출토
-『고구려고고학II』

百濟지역 출토품중 가장 간단한 양식으로 夫餘 鹽倉里 壺棺墓 출토 금동제품(그림 2)을 들 수 있는데, 세환에 작은 3개의 고리를 연결하고 그 밑에 거의 타원에 가까운 심엽형 垂飾을 매달고 있는 아주 간단한 양식이다.



(그림 2) I-A식 心葉形 귀걸이
百濟지역 夫餘 鹽倉里 壺棺墓 출토
-『古墳出土 副葬品 硏究』

古新羅지역 출토품중 가장 간단한 양식으로 황남동 제110호분 출토 금제귀걸이(그림 3)를 들 수 있는데, 일부 소실되었으나 대체로 보아 모환에 자환이 달리고, 자환에 수식부가 달려있고 수식부는 花籠飾으로 되어 있는데, 금철사 두가닥을 球形 花籠飾을 관통하여 상단은 자환에 매달고, 하단은 一枚心葉形 수식부가 垂下되어 있는데 古式에 속하는 것이다].[3)] 皇吾里 破壞古墳 第4槨에서도 동일 양식이 출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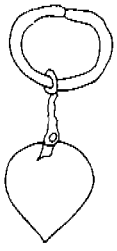
(그림 3) I-A식 心葉形 귀걸이
古新羅지역 경주 황남동 제110호분 출토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第1輯

고신라지역 출토품 중 가장 많은 유례를 볼 수 있는 양식은 皇吾里 제14호분 제1곽 출토품같이 細環에 아주 작은 小形環을 서로 붙여서 만든 花籠形 球體와 같은 기법으로 제작한 반구체를 연결한 중간식을 매어 달고 1매의 心葉形板으로 이루어진 垂下飾을 단 구조형식[4)]이다. 皇南洞 第98號墳 南墳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皇吾里 破壞古墳 제2槨 출토 금제품은 세환은 거의 소실되었으나 중간식에는 심엽형의 수개의 영락을 매달고 있으며 끝에 심엽형의 垂下飾을 달고 있다.

加耶지역 출토품중 가장 간단한 양식은 大邱 內唐洞 第59호분 출토 銀製品(그림 4)을 들 수 있는데 細環에 1줄의 銀線으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 꼬아서 다시 그 끝을 작은 고리로 만들어 銀製心葉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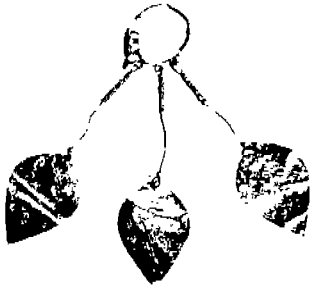
2) 최무장, 『고구려고고학II』 서울:민음사, 1995, p.890.
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 第1輯, 1975. p.308.
4) 齊藤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皇吾里第14號墳調査報告」 『昭和9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7, p.70.

垂下飾을 달은 아주 간략한 양식이다.[5] 義城 塔里 고분 제Ⅱ곽에서도 동일 양식이 출토되었다. 大邱 內唐洞 제51호분 제2석곽 출토 금제품은 세환에 작은 고리를 달고 連環으로 반구체를 만들어 상하로 붙이고 다시 連環半球體에 心葉形垂飾을 붙였다.[6]



(그림 4) I-A식 心葉形 귀걸이
加耶지역 大邱 內唐洞 第59호분 출토
-『大正12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이상과 같은 單葉式이며 細環式의 心葉形양식은 心葉形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같은 心葉形의 형태는 스키타이계 심엽형귀걸이(그림 5)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7] 초기의 것일수록 心葉의 모양이 杏葉形에 가까우며 점차 複葉形에서 볼 수 있는 위가 볼록한 하트모양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 I-A식 心葉形 귀걸이
Parthian 王國 키란州 출토
-『世界考古學大系』11

2) I-B식

高句麗지역 출토품은 아직 그 발견 예가 없다.

百濟지역 출토품은 공주 백제고분군 출토 금제품(그림 6)을 들 수 있는데, 太鐶에 가는 고리를 연결하고 거기에 다시 긴 사슬형태를 연결하고 그 끝에 心葉形 垂飾을 매달고 있는 비교적 간단한 양식이다.

(그림 6) I-B식 心葉形 귀걸이
百濟지역 공주 백제고분군 출토
-『古墳出土 副葬品 硏究』

古新羅지역 출토품으로는 경주 천마총출토 금제품을 들 수 있는데, 태환에 금동환을 꿰고 거기에 조그만 고리로 透彫球形花籠形 장식을 달고 끝에 心葉形을 매달은 것으로 上下花籠形에는 각각 9개의 葉形瓔珞이 달려 있다. 심엽형의 周緣과 中央線이 捲線形으로 장식되고 있다. 전체길이는 6cm이고 태환의 直徑은 2.6cm이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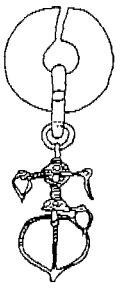
皇吾里 제14호분 제1곽 출토품은 中空의 金製太鐶에 3개의 連環을 垂下시켜 하단에 心葉形의 垂飾을 부착시킨 비교적 단순한 양식의 것이다. 同古墳 제2곽 출토품은 금제 태환에 세환을 연결하고 이 세환에 아주 작은 소형환을 이어 붙여서 만든 花籠形球體와 반구체를 상하로 연결한 中間飾과 縱長心葉形板 1매로 이루어진 垂下飾을 연결한 것이다.[9] 이와 같은 구조의 예는 仁旺洞 第19號墳 F槨, 경주 황남동 제98호분 남분[10]에서도 출토되었다.

---

5) 野守健・小泉顯夫,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大正12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2, p.91.
6) Ibid. p.61.
7) 金文子,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서울: 민족문화사, pp.134-35.
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發掘調査報告』, 1974, p.96.
9) 齊藤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皇吾里第14號墳調査報告」『昭和9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7, p.71.78.
1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査報告書』, 1994. 本文 p.85, 圖版 194-3.4 圖面 38-9, 10, 11.

또한 前者 등과 거의 같은 구조이나 心葉形板의 중앙에 한줄의 突帶가 있는점이 다른 것도 있는데, 황남동 제98호분 북분 출토품은 中空의 금제 태환에 세환을 연결하고, 중간장식은 일반적인 透作球體와 半球體를 二段으로 만들어 장식하고 끝에 중앙에 수평으로 短線文이 새겨진 垂直帶를 덧붙인 心葉形板을 매달고 있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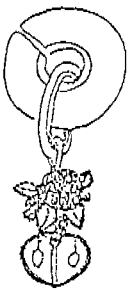
慶州 金鈴塚 출토품(그림 7)은 금제 태환에 세환을 연결하고 그 밑에 다시 小環을 겹치게 걸어서 아래에 垂飾을 연결하고 있다. 이 수식은 금세공을 한 花籠形과 花笠形의 상하 두단의 장식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上段에 7개, 下段에 6개의 心葉形 瓔珞이 달려 있고, 그아래는 中心線을 縱溝狀으로 押出한 心葉形垂飾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하나의 예는 前者와 거의 동일한 양식이나 垂飾部인 心葉形垂飾에 中心線외에 둘레에도 顆粒狀장식을 더하고 있는점이 다르다.[12]



(그림 7) I-B식 心葉形 귀걸이
古新羅지역 경주 金鈴塚 출토
-『大正13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경주 보문동 부부총 婦塚 출토품[13]은 굵은 고리 밑에 타원형의 가는 고리가 달렸다. 여기에 속이 빈 방울을 달았다. 방울에는 2단에 걸쳐 여러 개 길쭉한 心葉形 장식을 금색 실로 연결하여 달았다. 밑에 늘어진 심엽형 장식은 원형에 가까우며, 그 끝이 뾰족하다. 태환과 그 밑의 타원형 고리 표면에 龜甲形과 꽃무늬형을 붙여서 장식하였다. 금세공이나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우수작으로 신라시대의 굵은 고리 금귀걸이 가운데 가장 발달된 형식이며 조금도 손상이 없는 완형인 것이 주목된다. 전체길이는 8.7cm이고 지름은 3.8cm이다.

加耶지역에서는 梁山 夫婦塚 婦人用으로 보이는 출토품(그림 8)이 있는데 이는 태환에 세환을 연결하고 세환에는 垂飾이 연결되게 만들었는데 垂飾에는 가는 金線으로 花籠形을 만들고 거기에 둘레를 7매의 杏葉形의 瓔珞이 두단 매달려 있고 그 끝에는 心葉形垂飾이 달려 있다. 瓔珞과 心葉形垂飾에는 中心線과 둘레에 顆粒狀장식을 가하고 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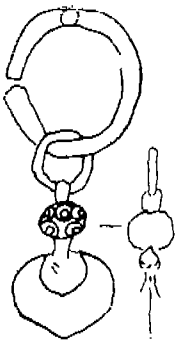
(그림 8) I-B식 心葉形 귀걸이
加耶지역 梁山 夫婦塚 출토
-『梁山夫婦塚ト其遺物』

2. 複葉形 귀걸이(II-1-A, II-1-B, II-2-A, II-3-A, II-3-B식)[15]

1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81.
12)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13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2, p.88.
13) 국립중앙박물관(편), 『명품도감』, 서울: 삼화출판사, 1985, 도판 66.
14) 小川敬吉, 「梁山夫婦塚ト其遺物」 『古蹟調査特別報告第5冊』, 1927, p.45.
15) 複葉形의 心葉形 귀걸이 양식은 發掘報告書의 實測圖등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앞 뒤에 瓔珞이 달려 있는 경우 報告書의 내용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림에는 앞면만 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 논문에서도 따로 첨부해 그려 넣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報告書 그대로 앞면만 나오게 된 그림이 많다.

1) II-1-A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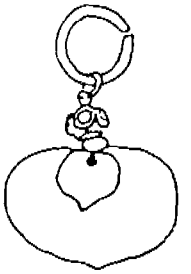
高句麗지역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봉화리 제 1호분 출토 귀걸이 1쌍이 있는데 귀에 매어다는 부분은 놋으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순금이다. 고리의 外徑은 20mm이고 內徑은 18mm인데 중간의 순금고리 밑에는 가는 황금줄로 만든 고리를 서로 잇대어 球形을 이루게하여 마치 꽃바구니를 연상시키는 등근모양이 달려있으며, 그 밑에는 얇은 황금판으로 만든 心葉形의 수식이 달려 있다. 그 중 하나는 크고 다른 2개는 작은데 제일 큰 장식물의 長徑은 20mm이고 작은 2개의 長徑은 모두 10mm 이다. 심엽형의 얇은 판은 가장자리를 접어 넣었다. 거의 동일한 양식의 귀걸이(그림 9)가 통강군 후산리 추동 제8호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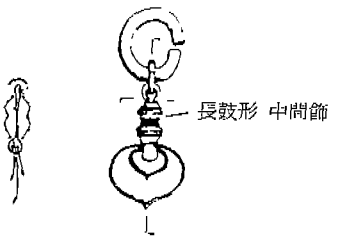
(그림 9) II-1-A식 心葉形 귀걸이
高句麗지역 통강군 후산리 추동 제8호 무덤 출토
-『고구려고고학II』

百濟지역에서는 公州 宋山里 고분출토 금제품(그림 10)을 들 수 있는데 세환에 花籠形의 중간식을 매달고 그 밑에 복엽형의 심엽형 수식을 달고 있다. 公州 舟尾里 제 3호분 출토 금제품도 세환에 원통형 중간식을 달고 그 밑에 다시 복엽형의 심엽형 수식을 매달고 있다.

古新羅지역에서는 경주 천마총 출토 金製 귀걸이(그림 11)는 被葬者가 착용한 것으로 金製主環에 小環을 꿰고 중간부가 透彫細腰로 된 長鼓形中間飾을 달고 아래에 左右側에 小形心葉을 加着한 心葉形장식을 달은 것이다. 길이는 6cm이고 心葉幅은 2.3cm이다.[16]



(그림 10) II-1-A식 心葉形 귀걸이
百濟지역 公州 宋山里 고분출토
-『古墳出土 副葬品 硏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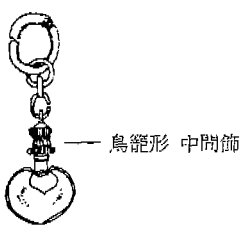
(그림 11) II-1-A식 心葉形 귀걸이
古新羅지역 경주 천마총 출토
-『天馬塚發掘調査報告』

경주 味鄒王陵 第7地區 第7號墳 출토예가 있는데 主環인 細環에 遊環인 小環이 연결되고 이 소환에 다시 小形環을 붙여서 만든 立方體의 中間飾을 연결하였으며 中間飾에 달아맨 垂下飾은 가장자리에 顆粒狀 裝飾을 한 心葉形板 앞뒤에 2매의 小形心葉形板을 添飾한 형태의 것이다.[17] 味鄒王陵前地域 A地區 第3號墳 제1墓槨, 銀鈴塚[18] 등에서는 세환에

16)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發掘調査報告』, 1974, p.97.
17) Ibid, p.123.
18) 金載元·金元龍, 「壺杅塚과 銀鈴塚」『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書』, 1948, 圖版 第48.

소환을 연결하고 그 소환에 아주 작은 소형환을 연접하여 만든 圓筒을 사이에 두고 상하로 주산알 모양의 것을 붙인 중간식과 周緣에 顆粒狀 장식을 한 1매의 심엽형판에 앞뒤면에 각각 1매의 小心葉形板을 添飾한 垂下飾을 달고 있다.[19] 味鄒王陵前地域 D地區 第1號墳에서는 세환에 소환을 연결하고 이 소환에 아주 작은 소형환을 연접하여 鳥籠形을 만들고 天障部와 低部에 역시 소형환을 2단 쌓아서 閉塞한 구조의 중간식과 1매의 심엽형판의 전후면에 각각 1매의 소형심엽형판을 添飾한 垂下飾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는 경주 仁旺洞 第19號墳L槨, 皇吾里第33號墳 東槨, 飾履塚[20] 등에서도 출토되었다.[21]

加耶지역에서는 大邱 飛山洞 第37號墳 第2石槨 출토 금제품은 세환에 작은 고리를 달고 小環을 연결하여 만든 圓筒鳥籠形인데 그 상하부는 과립상 장식을 한 편평한 반구체로 막고 아래에 심엽형수식을 달았는데, 여기에 작고 오목한 심엽형을 添飾하였다. 심엽형수식과 첨식한 심엽형의 周緣에는 點刻을 하고 있다.[22] 昌寧 校洞 7号墳 出土 금제품(그림 12)은 세환에 고리를 3개 연결하고 그 밑에 鳥籠形의 중간식을 달고 그 아래에는 심엽형의 수식과 앞뒤에 작은 심엽형의 垂飾을 添飾하고 있다.[23] 星州 星山洞 第1號墳 출토품[24]은 세환에 고리들을 연결하고 중간에 소환을 連接하여 만든 立方體의 中間飾이 달리고, 그밑에 심엽형수식을 달고 앞뒤에 작은 심엽형장식을 添飾하고 있다.



(그림 12) II-1-A식 心葉形 귀걸이
加耶지역 昌寧 校洞 7号墳 출토
-"昌寧校洞古墳群"

2) II-2-A식

高句麗지역에서는 아직 이같은 양식이 보이지않는다

百濟 지역에서는 공주 백제고분군에서 두종류가 출토되고 있다. 하나(그림 13)는 세환에 花籠形 중간식을 달고 그 아래 앞뒤에 원형 영락을 첨부한 복엽형의 심엽형 수식을 매달고 있다. 또 하나는 세환에 긴 사슬로 연결하고 그 밑에 원형 영락을 부착한 복엽형의 심엽형 수식을 매달고 있다.

(그림 13) II-2-A식 心葉形 귀걸이
百濟지역 공주 백제고분군 출토
-『古墳出土 副葬品 硏究』

古新羅지역에서는 경주 황남동 제14호분 출토 금제품을 볼수 있는데 세환식 주환에 菱形 小突起를 표면에 배치한 卵形의 중간식을 연결하였으며 杏葉形 수식에 가까운 垂下飾에는 앞뒤에 각각 1매씩의 원형영락을 매달고 있다. 중간식의 菱形突起주위와

19)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 硏究』, 서울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p.82.

20)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13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1932, p.214, 圖版162.

21) 尹世英, op. cit.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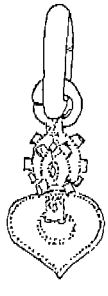
22) 野守健・小泉顯夫,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大正12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2, p.30.

23) 穴澤和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第60券 第4号, 東京:日本考古學會, 1975, pp.31-32, 35-36.

24) 尹世英,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관하여" -古墳出土 冠帽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第17號, 1974.12, p.79, 80.

垂下飾과 圓形瓔珞 주위에는 金細粒으로 縷金장식을 가했다. 경주 味鄒王陵地區 C地區1號墳과 A地區4號墳에서도 동일한 양식이 출토되었는데 C地區 출토의 귀걸이는 卵形의 중간식에만 金細粒의 縷金장식이 되어 있고, A地區의 귀걸이는 金細粒 장식이 생략되었다.[25]

경주 壺杅塚 출토 금제품(그림 14)은 세환에 가는 고리를 연결하고 卵形의 中間飾을 달았다. 중간식 표면 전체에는 菱形의 작은 圓筒들이 돌출되었고 그 주위를 작은 금 알갱이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중간식 하단에는 심엽형 수하식을 달았다. 심엽형 장식의 표면에는 한면이 안으로 內彎된 원형영락을 한 개씩 달았다. 심엽형 장식과 원형영락 周緣에도 작은 금알갱이로 장식하였다. 신라시대의 정교하고 섬세한 鏤金 장식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 원통을 단 중간식의 치밀한 장식이 놀랍다. 단순함 속에서도 난형의 중간식 등 형태의 변화를 추구한 수준 높은 작품으로 호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전체 길이는 6.8cm이고 지름은 2.5cm이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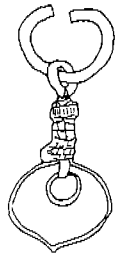


(그림 14) II-2-A식 心葉形 귀걸이
古新羅지역 경주 壺杅塚 출토
-「壺杅塚과 銀鈴塚」

慶州 內東面 普門里 古墳 고분 출토 금제품도 가는 고리식의 둥근 윗고리 밑에 중간 장식을 연결하였다. 중간 장식은 주판알같이 생긴 것을 두 개 연결하였는데, 그 들 사이에 작은 원통형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이 중간 장식은 섬세한 透刻 장식을 보여준다. 끝 장식은 心葉形장식에 內彎된 圓形瓔珞의 側葉이 달려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귀걸이는 경주 금령총 고분에서도 출토된 적이 있다. 찬란한 금빛이 단순하면서도 안정된 형태와 잘 조화되어 있다. 장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전체 길이는 7cm이고 지름은 2.8cm이다.[27]

皇南里 破壞古墳 第1槨 출토 금제품은 세환에 소환을 연결하고 이 소환에 天障部와 低部에 수개의 小圓筒을 붙인 타원형의 타원형의 중간식과 1매의 심엽형판의 전후에 각각 1매의 소형원판을 添飾한 垂下飾을 연결한 구조이다.[28]

加耶 지역에서는 大邱 飛山洞 第34號墳 第1石槨 출토의 금제품(그림 15)을 들수 있는데 세환에 작은 고리를 달고 소환을 연결하여 만든 圓筒鳥籠形의 中間飾은 상하부를 顆粒狀裝飾을 가하고 있으며 그 밑에 고리에 매단 심엽형 수식에는 앞뒤에 작고 오목한 圓形飾을 添飾하고 있다. 이 垂飾들의 周緣은 點刻을 가하고 있다.[29] 梁山 夫婦塚 출토 主人의 것으로 보이는 금제품이 있는데 細環에 中間飾을



(그림 15) II-2-A식 心葉形 귀걸이
加耶지역 大邱 飛山洞 第34號墳 第1石槨 출토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25)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 2, 古墳美術, 서울:同和出版公社, 1975, p.139, 도판 33.
26) 한병삼(편저), 『국보1』, 고분금속, 서울:웅진출판, 1992, 도판99.
27) 국립중앙박물관(편), 『명품도감』, 서울: 삼화출판사, 1985, 도판 66
28) 國立博物館, 「皇吾里4·5號墳, 皇南里破壞古墳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5冊, 1964, pp.40-41.
29) 野守健·小泉顯夫,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大正12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2,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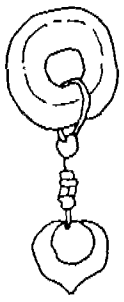
달았는데, 이 中間飾에는 紅瑪瑙 원통형의 상하부를 嵌玉을 한 半球體로서 被覆한 것으로 그 아래에는 양측에 圓形中凹의 장식을 달고 있다.[30]

이같은 II-2-A식은 당시에 일본에 전해져 일본 고분시대 귀걸이의 대표적인 양식을 이루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岡山市 北浦 八幡大塚고분 출토품(그림 16)을 보면, 細環에 子環 또는 中間飾이 달리고 그 끝에 앞뒤의 원형영락이 달린 復葉式의 心葉形 장식이 달려 있어 우리의 II-2-A식이 거의 그대로 전파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6) II-2-A식 心葉形 귀걸이
日本 姜山市北浦八幡大塚 출토
-『古代史發掘』 6

3) II-2-B식

이 양식은 百濟地域 공주 백제고분 출토품(그림 17)에서만 볼 수 있는데 태환에 고리를 연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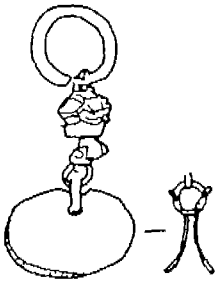


(그림 17) II-2-B식 心葉形 귀걸이
百濟지역 공주 백제고분 출토
-『古墳出土 副葬品 硏究』

심엽형 수식에 앞뒤에 원형영락을 부착하고 있다.

4) II-3-A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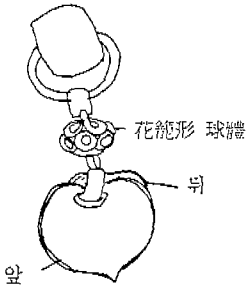
百濟 地域 출토품으로 송산리 제6호분 출토품(그림 18)을 들 수 있는데 花籠形 중간식 밑에 크기가 같은 심엽형 수식 2매를 앞 뒤에 매달고 있다.



(그림 18) II-3-A식 心葉形 귀걸이
百濟지역 송산리 제6호분 출토
-『古墳出土 副葬品 硏究』

5) II-3-B식

高句麗 지역 출토품은 평안남도 대동군 출토 금제품(그림 19)[31]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太鎖에 다시 가는 고리를 연결하고 그 밑에 花籠 垂飾을 붙인 다음 그 밑에 같은 크기의 두매의 心葉形 垂飾을 매단 양식이다.[32]



(그림 19) II-3-B식 心葉形 귀걸이
高句麗지역 평남 대동군 출토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30) 小川敬吉, 「梁山夫婦塚ト其遺物」『古蹟調査特別報告第5冊』, 1927, p.45.
31)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고구려편 2, 서울:민족문화, 1993, 도판471참조.
32) 최무장, Op.cit., pp.885-886.

Ⅲ. 結 論

心葉形 귀걸이 樣式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分類되었다.

① I-A식은 細環式의 單葉形으로 高句麗, 百濟 古新羅, 加耶지역 모두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스키타이계 心葉形 귀걸이 양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② II-B식은 太環式의 單葉形으로 高句麗地域에서는 아직 그 출토예가 없다.

③ II-1-A식은 細環式의 앞뒤에 心葉形의 瓔珞을 매단 複葉形 形態로 高句麗, 百濟, 古新羅, 加耶 地域 모두에서 出土되고 있다. .

④ II-2-A식은 細環式의 앞뒤에 圓形 瓔珞을 매단 형태로 高句麗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이같은 양식은 우리나라에서 당시 日本으로 전해져 동일한 양식의 心葉形 귀걸이가 古墳에서 出土되고 있다.

⑤ II-2-B식은 太環式의 앞뒤에 圓形 瓔珞을 매단 형태로 百濟 地域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⑥ II-3-A식은 細環式의 두매의 크기가 같은 心葉形 垂飾을 매단 형태로 百濟 地域에서 출토되고 있다.

⑦ II-3-B식은 太環式의 두매의 크기가 같은 心葉形 垂飾을 매단 형태로 高句麗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心葉形 귀걸이 양식은 I-A, II-1-A만 高句麗, 百濟, 古新羅, 加耶 모든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이 두 양식이 가장 보편적인 心葉形 귀걸이 양식으로 생각된다. I-B식과 II-2-A식은 高句麗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양식에 따르는 고분출토품의 수량으로 보아 거의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古新羅, 加耶지역의 心葉形 귀걸이 형태는 I-A식, I-B식, II-1-A식, II-2-A식, 즉 單葉形 細環式이나 太環式, 複葉形일 경우 앞뒤에 心葉形이나 圓形 瓔珞을 부착한 細環式 귀걸이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또한 II-3-A식과 II-3-B식 같이 母環은 다르지만 같은 크기의 心葉形 두매를 매달고 있는 양식은 지금까지의 古墳出土品으로 보아 高句麗와 百濟地域에서 보이는 독특한 양식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古墳出土品을 考察한 것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발굴품이 나오면 더 보충 해야 하리라 생각되며, 他樣式의 귀걸이 연구와 함께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啓明大學校博物館, 『星州星山洞古墳群』 開館10周年記念 特別展圖錄, 1988.
- 『古代史發掘』 6, "古墳と國家の成立ち", 東京:講談社, 1975.
- 國立博物館, 「皇吾里4·5號墳, 皇南里破壞古墳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5册, 1964.
- 국립중앙박물관(편), 『명품도감』, 서울: 삼화출판사, 1985.
- 金文子,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서울:민족문화사, 1994.
- _____, 『韓國服飾文化の 源流』, 東京:勉誠出版, 1998.
- 金載元·金元龍, 「壺杅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書』, 1948.
- 金宅圭·李殷昌, 「皇南洞古墳發掘調査概報」 『嶺南大學校古蹟調査報告第1册』, 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 金載元·尹武炳, 「義城塔里古墳」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3册, 1962.
-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13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1932.
- 梅原末治·藤田亮策編著, 『朝鮮古文化綜鑑』 第四卷, 奈良:養德社, 1966.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發掘調査報告』,

1974.

· _____, 慶州史蹟管理事務所,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 第1輯, 1975.

· _____,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1985.

· _____,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査報告書』 本文, 圖版 圖面, 1994.

·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大正13年度古蹟調査特別報告』 第三册, 1924.

· 小川敬吉, 「梁山夫婦塚ト其遺物」 『古蹟調査特別報告第5册』, 1927.

· 野守健・小泉顯夫,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大正12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1932.

· 尹世英,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관하여" -古墳出土 冠帽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第17號, 1974.12.

· _____, 『古墳出土 副葬品 硏究』, 서울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 伊藤秋男, "耳飾の型式學的硏究に基づく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試案", 『朝鮮學報』, 제64, 天理大學 朝鮮學會, 1972.

· 齊藤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皇吾里第14號墳調査報告」 『昭和9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1937.

·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고구려편 2, 서울:민족문화, 1993.

· 최무장, 『고구려고고학Ⅱ』 서울:민음사, 1995.

·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 2, 古墳美術, 서울:同和出版公社, 1975.

· _____(편저), 『국보1』, 고분금속, 서울:웅진출판, 1992.

· 穴澤和光, 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第60券 第4号, 東京:日本考古學會, 1975.